

# 탈냉전 이후 무력갈등의 변화추세와 주요 이론적 설명<sup>1)</sup>

고대원

(연세대학교)

〈국문 요약〉

평화와 무력갈등에 관한 주요 데이터세트들을 비교·검토해보면 탈냉전 이후 무력갈등은 전반적으로 뚜렷이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은 이러한 평화증진 추세의 요인과 지속성 여부에 대해 상이한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의 무력갈등 감소 추세는 상이한 이론적 시각에서 강조하는 여러 요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효과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주제어 : 국제평화, 무력갈등, 전쟁, 자유주의, 구성주의, 평화이론

## 1. 서언

이 글은 탈냉전 이후 평화와 전쟁의 변화 추세 및 요인을 국제평화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연구에 비추어 검토·추정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의 2절에서는 기존의 주요 개념들에 바탕을 두어 분석적 및 실천적 유용성을 가지는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3절은 탈냉전 이후 국제평화가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여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평화의 미리 이미지(mirror image)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의 발생 빈도 및 규모의 변화 추세를 최신의 주요 데이터 세트

1) 이 글은 제주대학교와 제주도 등이 개최하였던 「세계평화의 섬 기반구축 세미나」(2005년 1월 27일)에서의 발표 논문 “국제평화이론과 평화의 섬 제주”를 수정한 것이다.

(data-sets) 및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탈냉전 이후 평화가 비교적 뚜렷한 증진 추세에 있음을 확인 하고 있다.

이어서 4절에서는 탈냉전 이후 평화의 증진 추세, 특히 국가간 전쟁의 감소라는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국제평화와 전쟁에 관한 주요 설이론 또는 가설들에 비추어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략한 결어를 제시하고 있다.

## 2. 평화 개념의 확장과 분석적 유용성의 문제

일찍이 단순히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되었던 평화의 개념은 대폭적인 확장 및 세분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평화 개념의 확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평화의 개념은 먼저 국가간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대내적 폭력으로부터의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세계 군사갈등(armed conflict)의 95% 이상이 대내적 갈등이라는 사실은 전쟁의 부재라는 평화 개념의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평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다양한 인종, 종교 및 사회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까지도 폭력적 갈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안보(security)의 개념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에서부터 한편으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나 사회적 안보(societal security)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온 것과 같은 맥락의 변화이다.(Buzan, 1983; Waever, et. al., 1993)<sup>2)</sup>

둘째, 평화의 개념은 폭력적 갈등의 방지 및 제거뿐만 아니라 기아, 질병,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부족 등으로부터의 안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평화는 이제 광의의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폭력뿐만 아니라 기아, 질병, 자연재

2) 안보 개념의 변화에 대하여 Lipschutz(1995), Krause and Williams(1997) 그리고 Lawson(1995) 등이 유용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해,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viii)

끝으로 평화의 개념은 개인, 집단 및 국가에 대한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의 부재라는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물리적 또는 개인적 폭력(personal violence)의 부재라는 개념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구별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의 부재,<sup>3)</sup> 또는 사회 정의와 통합의 실현을 뜻하는 개념이다.(Galtung, 1969, pp. 175-177, 183; 1964, p. 2) 앞서 언급한 광의의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평화 개념 역시 정의와 사회통합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적 갈등의 부재라는 의미의 평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규범과 가치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정의—물론 그 내용은 매우 가변적일 수밖에 없지만—와 통합의 실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 개념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개념의 확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와 실천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광의의 평화 개념은 많은 경우 실제 연구에 있어서 그 분석적 유용성이 크게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광의의 평화 개념이 발전, 정의 또는 평등과 같은 기존의 다른 개념들과 지나치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광의의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평화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기존의 주요 개념을 뛰어 넘는, 독창적인 분석적 유용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새롭게 독자적인 연구 프로그램(research program)을 제시해주는 데도 한

3) 갈통은 구조적 폭력을 구조에 내재하면서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표출되는 폭력이라고 하고, 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를 그 조건으로 지적한다.(Galtung, 1977, 173)

계가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viii)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현상과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평화개념의 유용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평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연구 및 실천에 있어서는 그 목적, 범위 그리고 자원 등등을 고려하여 각 맥락에 적합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평화 개념의 선택은 “평화의 섬 제주”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거에서 이 글에서는 폭력적 갈등의 부재라고 하는 비교적 협의의 평화개념을 채용하고 있다. 즉, 평화의 개념을 개인, 집단, 국가 또는 인류공동체에 대한 폭력 위협의 부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제평화가 이 글의 주제인 만큼 이후의 논의는 국제평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제평화와 관련해서는 케네스 보울딩(Kenneth Boulding) 등이 제시한 안정적 평화(stable peace)의 개념이 여전히 유용성을 가진다.<sup>4)</sup> 그는 안정적 평화를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어느 당사자도 그것을 실제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의한다.(Boulding, 1978, p. 13) 조지(Alexander George)는 이 개념을 더욱 명확히 정의함과 동시에 이와 구별되는 다른 범주의 평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안정적 평화를 두 국가가 그들 중 어느 일방도 어떠한 분쟁에 있어서나 무력의 사용 또는 그러한 위협을 고려하지 않는 관계를 이루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안정적 평화 속에서는 두 국가 모두 군사력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억지(deterrence)와 강제(compellence)라는 대안은 정책수단에서 제외시키게 된다.<sup>5)</sup>

그는 안정적 평화를 다른 두 가지의 평화 개념과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불안정한 평화(precarious peace)로 이는 첨예한 갈등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의 “군사적 갈등의 일시적 부재”에 지나지 않는 상

4) 물론 이 안정적 평화는 국가간 관계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 차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황을 가리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잠정적 평화(conditional peace)인데, 이것은 위기상황에서는 위협의 증대 또는 실제 폭력 행사의 가능성이 상존하면서도 일반억지(general deterrence)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고 정의된다.(George, 2000, p. 13)<sup>6)</sup>

이와 같은 평화 개념의 세분화는 국제평화의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능케 해주며,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유지되는 평화의 성격 내지 수준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안정적 국제평화는 서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구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평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적할 것은 평화가 정치적 용어 또는 구호로도 널리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소위 좌파 주도의 정치 활동, 예컨대 반군시주의 이념의 표방이나 다양한 유형의 반전 운동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채용되는 평화의 개념은 대개 특정한 이념적 지향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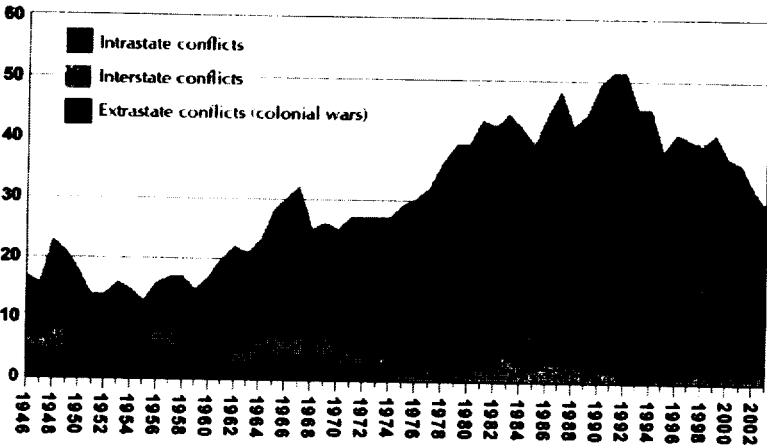
### 3. 탈냉전 이후의 국제평화: 현상과 추세

전쟁과 평화와 관한 주요 데이터 세트 및 분석들을 검토해 보면 탈냉전 이후 폭력적 갈등의 부재로서의 평화의 증진 추세는 뚜렷하게 확인된다. 1946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유형의 폭력 갈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British Columbia University) 「인간안보센터(Human Security Cent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내전, 인종 및 정치적 학살 그리고 테러 등을 망라하는 무력갈등(armed conflict)—25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은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초에는 3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sup>7)</sup>

6) 일반억지(general deterrence)의 개념에 대해서는 Morgan(1977)을 참조.

7) 이 보고서는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과 PRIO(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공동으로 구축한 데이터 세트(dataset)를 주요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갈등의 유형 구분도 그에 따르고 있다. 이 데이터 세트에서는 1946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55년간 1999년 이상의 사망자를 선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초부터 반전되고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전체 무력갈등은 급속히 감소하여 2003년에 이르러서는 40%가 감소하였다. 1992년 50건 이상 발생하였던 전쟁 및 내전은 2003년에는 29건이 발생하였으며, 각 갈등에 따르는 사망자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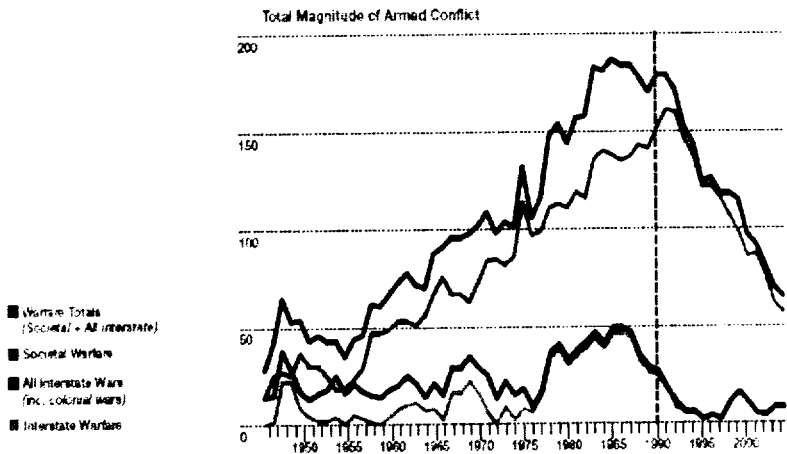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군사갈등 발생 빈도, 1946-2003년

(출처: Human Security Centre, 2005, p. 23.)

몬티 마셜과 테드 거(Monty G. Marshall and Ted Robert Gurr)도 이와 유사한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와 갈등 2005(Peace and Conflict 2005)』에서 주요 군사갈등의 총규모(total magnitude)가 198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 이후 계속 급감하여 2004년에 이르러서는 1980년대 중반 수준에 비하여 60% 이상 감소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sup>8)</sup>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의 군사갈등 규모는 1950년대 이래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Marshall and Gurr, 2005, p. 11)

8) 군사갈등의 규모(magnitude)는 관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투병력 및 사망자 수, 영향을 받은 공간 및 인구의 규모, 그리고 생산기반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한 10점 만점의 단일 지표로 측정된다.(Marshall and Gurr, 2005,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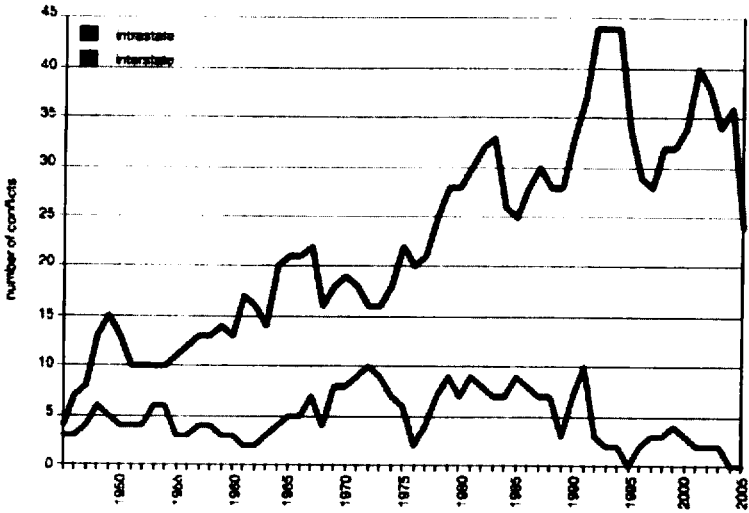


〈그림 4〉 폭력적 갈등의 변화 추세, 1946-2004

(출처: Marshall and Gurr, 2005, p. 11)

그러나 갈등을 그 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국제갈등 연구소(HIIK: Heidelberg Institute on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는 탈냉전 이후에도 폭력적 갈등의 수준이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갈등지표 2005(Conflict Barometer 2005)」에 의하면 <그림 3>에서 보듯이 “고강도의 폭력적 갈등(violent conflicts of high intensity)”는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sup>9)</sup> 이 보고서에서도 고강도의 폭력적 갈등 수준이 1990년대 초반 그 정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강도 무력적 갈등은 <그림 3>과 같이 그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00년대 초에 다시 증가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급감하였다.(HIIK, 2005, pp. 3-4)

9) 여기에서 고강도의 폭력적 갈등은 두 가지 유형의 갈등을 포함하는데, 그 하나는 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폭력적 무력행사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을 의미하는 신강화 위기(new crises)이다.(HIIK, 2005, p. 2)



〈그림 5〉 연도별 고강도 갈등, 1945-2004년  
(출처: HIIK, 2005, p. 3.)

전체 무력갈등의 경우에 비하여 국제적 군사갈등, 즉 전쟁의 감소 추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차 대전 이래 전쟁의 발생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탈냉전 이후에는 더욱 감소해왔다. 더욱이 최근 국가의 수가 2차 대전 직후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탈냉전 이후 전쟁 발발의 실제 확률은 그야말로 급감했다고 할 수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23; Marshall and Gurr, 2005, pp. 11-15)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비단선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는데, 특히 1970년대부터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해왔다. 그에 따라 전쟁 당 사망자수는 1950년에 38,000명에 달했던 것이 2002년에는 60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31)

따라서 탈냉전 이후 오늘날까지는 1816년 이래 전쟁—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이 가장 적게 발생한 기간이 되었다. 이는 또한 가장 오래 동안 전쟁 발생 빈도가 낮게 유지된 기간이기도 하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148) 이러한 추세는 「하이델베르크 국제갈등 연구소(HIIK)」의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고강도의 대내갈등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반하여, 고강도의 국가 간 군사갈등은 1990년대 초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HIIK, 2005, p. 3)

전쟁의 전조가 되는 국제위기의 발생 건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의 「국제위기행태 프로젝트(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Project)」의 데이터 세트에 의하면, 1981년 정점에 달하였던 국제위기의 발생건수는 그 이후 계속 급감하여 2001년에는 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28)

하지만 이와 같은 전쟁의 감소 추세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폭력적 갈등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더 일찍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비하여, 사하라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오히려 2002년까지도 계속 증가해왔다. 그리고 중앙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 이후의 감소 추세가 둔하게 나타나고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p. 24-25)

위의 세 <그림>들을 보면 대내적 무력갈등은 1990년대 초 이후 전쟁보다도 더욱 급격하게 감소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안보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1946년 2건밖에 되지 않았던 내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는 25건에 달하였다. 하지만 1992년부터 내란의 발생은 급격히 줄어들어 2002년에는 발생건수가 80% 감소하였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p. 150-151) 그리고 1991-2004년 기간 동안 자치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은 21건이 시작 또는 재개된 반면 43건이 종결되었고, 2004년 25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1976년 이래 가장 적은 수이다. 또 2001년 인종 및 정치적 학살의 발생 건수는 1988년에 비해 80% 감소하였고, 국제적 위기는 1981년에 비하여 70% 이상 적게 발생하였다. 국제 테러리즘 역시 1980년대 후반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다만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사상사수는 급증하였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p. 1-2)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비롯한 폭력적 갈등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며, 이는 위의 분석들에서도 예외 없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마셜과 거(Marshall and Gurr)는 현재도 아시아에는 확전 가능성이 큰 몇몇 국지분쟁의 위험이, 남미에는 경제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권위주의정권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그리고 중동에는 이슬람 과격파의 성전에 따르는 무력 갈등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Marshall and Gurr, 2005, p. 75) 또 2005년 중에도 다수의 국제 위기가 발생 또는 악화되기도 하였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탈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평화증진 추세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난 15년의 기간은 그 동안의 변화가 과연 미래의 국제평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해 줄 정도의 근본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변동에 불과한 것인지를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기도 하다. 아무튼 탈냉전 이후 국제평화의 증진 추세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는 평화증진의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국제평화와 전쟁에 대한 주요 이론 및 연구에 비추어 탈냉전 이후의 평화 증진의 주요 요인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4. 탈냉전 이후의 국제평화와 주요 이론

탈냉전 이후 평화 증진의 요인은 물론 냉전의 종식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냉전의 종식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무력갈등의 급감 추세의 한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제시되지 않는다. 『인간안보센터』는 냉전이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전쟁과 내전의 약 1/3의 주요 또는 부분적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148)

탈냉전은 2차 대전 이후 광범위하고도 첨예하게 진행되었던 주요 이념 대립의 종식을 포함하는 바, 냉전의 종식은 무력갈등의 주요인의 하나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및 체제대립은 여전히 무력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다. 「갈등지표 2005」는 2005년의 경우에도 이념대립이 국력증대를 위한 투쟁에 앞서서 전체 그리고 고강도 갈등의 첫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HIIK, 2005, pp. 3-4) 탈냉전은 또한 강대국의 지원에 의한 대리전쟁의 급감을 가져왔다. 「인간안보센터」의 보고서는 이것이 탈냉전 이후 전쟁 감소의 최대 2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153)

그렇지만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체계의 변화가 평화 증진의 요인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현실주의자들은 2차 대전 이후의 “긴 평화(long peace)”, 즉 강대국 간 전쟁의 부재가 양극체제의 안정성과 핵억지(nuclear deterrence)에 바탕을 두었던 것으로 설명한다.(Gaddis, 1989) 다시 말하여 냉전기의 평화는 세력균형의 기초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에도 “긴 평화”가 지속되고 무력갈등이 급감하며 체제 불안정의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세력균형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단지 일시적인 숨고르기 과정에 불과하며 조만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한 불안정이 수반되는,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세력균형—강대국간 패권경쟁을 통한—의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Mearsheimer, 1990; 2001)

이와 유사하게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론에서도 전쟁의 위험이 기존 패권이 새로운 도전세력에 의해 교체가 이루어질 때 높아진다고 본다. 그것은 이 과정에서 기존 패권국이 예방전쟁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도전국이 성장하는 자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이익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Organski and Kugler, 1980; Kugler and Lemki, 1996) 하지만 세력전이론은 세력균형론과 달리 패권의 수립과 유지, 그리고 패권국

조 아래서의 국제체계의 안정성의 유지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세력전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탈냉전 이후의 국제평화와 안정성은 상당부분 미국 패권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은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연성국력(soft power), 또는 더 나아가 그람시적 패권(Gramscian hegemony)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sup>10)</sup> 유럽과 일본도 기본적으로 미국 패권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패권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요소는 핵억지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핵억지의 유지는 강대국들이 패권국이나 다른 강대국들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아무튼 탈냉전 이후 지금까지 세력전이론에 따르는 패권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갈등이나 세력균형론 또는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격렬한 세력균형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 동안의 군사적 갈등 감소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 시각은 현실주의와 달리 국제평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가설과 정책처방을 제시해왔다. 자유주의에서 강조되는 국제평화 및 협력의 주요 요인들은 소위 “칸트의 평화(Kantian peace)” 또는 “자유주의 평화(liberal peace)”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국제제도이다.(Kant, [1795] 1949; Jervis, 2001)

자유민주주의가 국제평화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sis)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 온 가설의 하나일 것이다. 일부 민주평화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의 부재, 또는 “평화지대(zone of peace)”의 존재는 명백한 경험적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또 이들은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설명을 제시해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 또는 요소들이 국가간의 평화와 협력을 촉진시킨다고 설명하는 바,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규범과 문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투

10) 연성국력과 국제관계에서의 그람시적 패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각각 Nye(2004)와

명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간의 친근성 내지 공통의 정체성이 포함된다.(Ray, 1995; Doyle, 1997; Russett and Starr, 2000; Russett and Oneal, 2001; Schultz, 1998; Risse-Kappen, 1995)

하지만 민주평화론은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동안의 다양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검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Gowa, 1999; Jervis, 2002) 특히 민주평화의 인과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난제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다. 그 하나는 평화의 다른 요인들—예컨대 경제적 상호의존—과의 민주주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이다. “칸트의 평화” 가설을 검증한 바 있는 브루스 러셋과 존 오닐(Bruce M. Russett and John R. Oneal)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기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 간의 군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전체 국가 평균보다 70% 이상 낮음을 확인하고 있다.(Russett and Oneal, 2001) 그런데 이러한 발견점은 한편으로는 민주평화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의 난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46년 20개국에 불과하였던 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그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여 오다가, 1990년경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88개국에 달하였다.(Marshall and Gurr, 2005, p. 16) 하지만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확산이 탈냉전 이후 평화 증진의 유의성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의 기간에 관한 한 민주주의의 확산의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유력한 증거나 연구결과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일단은 유보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론 이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성숙의 보다 장기적 효과나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는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증가와 함께 지해되 독재·민주주의의 증가 유형(anocracy)에 속하는 국가들의 급증한

사실에도 그 근거를 든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독재국가(*autocracy*)의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중간 유형의 정치체제로 이행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이 유형의 국가의 수는 1985년의 16개국에서 2000년에는 51개국으로 급증하였고, 아직까지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확산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확산의 효과가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무력적 갈등행위의 억제—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에 따른 효과와 쉽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Marshall and Gurr, 2005, pp. 16-17)

민주주의에 이어서 “칸트의 평화”의 다른 요인으로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가 국제평화와 협력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가설은 일찍이 전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노먼 앵겔(Norman Angell, 1912)의 주장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 가설은 그 근거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그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의 감소 또는 상실 우려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며, 경제적 번영을 통하여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국내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가설은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은 그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원하는 국내세력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국가 간의 상호이해 및 친밀도 등을 증진시킨다고도 한다.(Polacheck, 1980; Wilson, 1978; Blainey, 1988; Rogowski, 1989)

경제적 상호의존론은 오래 동안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왔고 이제 그 개연성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상호의존의 증대가 모든 유형의 갈등을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군사갈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가설 역시 민주평화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안에서의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상이한 효과 그리고 상대적 이득의 문제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 (Gartzke, 2001; Barbieri, 1996; Wagner, 2000) 또 경제적 상호의존의 긍정적 효과는 무시할 정도로 작으며, 가설과는 반대

방향의 또는 의사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Buzan, 1984; Levy, 1989; Mueller, 2004) 이러한 비판들은 결국 이 가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상호의존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이나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상대적 비중은 얼마나 크고 다른 요인들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가 탈냉전 이후의 평화 증진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의 효과에 대한 데일 코플랜드(Dale C. Copeland, 1996)의 가설에 따르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의 효과는 경제교류의 이득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즉 정책결정자가 경제교류의 이득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려 하는 경우 경제적 상호의존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비관적인 기대를 가질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의 기간은 무역과 경제교류의 이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세계적으로 고조되어 온 시기이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의 타결과 그 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의 강화 추세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리고 이처럼 고조된, 경제교류의 이득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코플랜드의 가설대로 탈냉전 이후 무력적 갈등을 억제하는 효과—그 크기는 불명확하지만—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칸트의 평화”의 셋째 조건은 국제기구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신자유주의 제도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제도론에서는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에서도 안보협력력을 포함하는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국제협력은 커뮤니케이션, 반복적 협력 상황과 “미래의 그림자” 효과, 그리고 상대적 이득의 비대칭성 완화 등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제도론은 국제제도가 협력의 장애가 되는 배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준다고 한다.(Kydd and Snidal, 1993; Axelord and Keohane, 1986; Snidal, 1991)

이에 대한 현실주의 시각의 비판은 역시 국제제도가 상대적 이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힘의 관계에 바탕을 두는 조정(coordination)과 협력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된다.(Grieco, 1990; Mearsheimer, 1994/5) 이 외에도 국제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심각한 이익 충돌이나 무력갈등을 방지할 정도로 크고 직접적이지 못하며, 또 국제제도와 평화·협력 간의 역방향의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Jervis, 2002)

그런데 그 동안 상대적 이득의 문제에 관한 현실주의의 시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의할만하다. 즉, 일부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협력의 장애가 되는 상대적 이득 문제의 완화 또는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 이득 문제와 안보 딜레마를 극복을 통한 안보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소위 “방어적 또는 낙관적 현실주의”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Glaser, 1997; Schweller and Priess, 1997; Schweller, 1996) 따라서 상대적 이득의 문제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 제도론과 현실주의는 절충점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 이후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는 팔목할만하다. UN(국제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 및 조직들은 전혀 없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쟁해결 및 평화유지·창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인간안보센터』에 따르면, 1990-2002년 기간 동안 UN의 예방외교활동은 1건에서 6건으로 증가하였다. UN 평화유지활동은 4건에서 15건으로 거의 4배 증가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성격의 평화창출활동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분쟁이 조속히, 즉 1년 이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이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UN의 분쟁해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조직들이 1990년의 4개에서 2003년에는 28개로 급증하였다.<sup>11)</sup> UN 이외의 다양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들의 독자적 활동과 UN과의 협력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p. 153-155)

11) 이와 같은 조직의 대표적 예로는 “Friends of the General-Secretary”와 “Contact Group” 등을 들 수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154)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는 민주주의의 확산이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달리, 탈냉전 이후 무력갈등 감소에 보다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인다. 「인간안보센터」도 탈냉전 이후 평화증진의 주요인은 “냉전의 종식으로 해방된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분쟁해결 및 평화유지 활동의 급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153)

끝으로 구성주의는 탈냉전 이후의 평화증진 추세에 대하여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들과는 다른 시각의 설명을 제시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환경의 구조적인 제약 아래 놓여 있기는 하지만, 전쟁 대신에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또 그러한 선택의 반복은 국제환경의 변화, 즉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 이익 그리고 구조의 변화는,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적 여지—그와 같은 선택이 곧 생존의 위협은 되지 않을 정도의—가 있고, 또 그러한 정책결정자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시작된다.(Katzenstein, 1996; Jepperson, Wendt and Katzenstein, 1996)

그러므로 구성주의에서는 국제평화와 협력의 증진이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학습, 즉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규범의 변화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과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권력정치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규범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랄트 뮐러(Harald Müller)에 의하면 변화를 위한 대안적 아이디어는 종종 황국가적인 “인식론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y)”, 비정부기구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 제공된다고 한다.(2002, p. 380)

구성주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뮐러는 정체성 및 이익과 제도적 및 규범적 맥락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요 약점으로 지적한다(Müller, 2002, p. 381) 또한 정체성, 이익 그리고 규범/문화의 변화는 물질적 변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결과 내지 증거라는 것과, 변화에 대한 구성주의의 설명이 종종 동의어 반복을 벗어나

지 못한다는 것 등의 비판도 이 자주 제기된다.(Jervis, 2002)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탈냉전 이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향하고 군사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새로운 국제규범 또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통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는 일종의 안보공동체가 형성 또는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Alder and Barnett, 1998) 하지만 아직까지는 탈냉전 이후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폭력과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집단적 학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일반대중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고, 전쟁과 대내적 폭력의 행사를 억제하는 국제규범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는 국제법에 위배되며,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는 자위를 위해서 또는 UN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Human Security Centre, 2005, p. 149)

혹자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국제제도의 확산은 평화의 요인이 아니라 그 결과에 불과하며, 평화증진의 주된 요인은 반/비폭력주의 태도와 규범의 강화라고 평가하기도 한다.(Mueller, 2004; Human Security Centre, 2005, p. 150)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 회피, 무력사용 금지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지향하는 태도와 규범의 변화가 탈냉전 이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폭력적 갈등의 감소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5. 결어

탈냉전 이후의 평화증진에 대한 이상의 다양한 설명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의 다양한 가설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냉전의 종식은 그 자체가 이념과 체제의 대립, 그리고 강대국의 개입과 지원에 의한 전쟁과 무력 갈등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패권질서가 유지됨에 따라, 새로운 세력균형 메커니즘의 작동이나 패권도전에 따르는 불안정도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민주주의의 확산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를 가속화시키고 국제기구의 폭발적인 역할 증대를 가져왔다. 특히 "해방된"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도에 의한 적극적인 분쟁방지 및 평화유지 활동의 급증은 탈냉전 이후 평화증진의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체성과 국제구조의 변화를 진행되는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공동체의 본격적 확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비/반폭력주의 내지 평화주의의 태도와 규범의 강화되었고, 이러한 변화 역시 탈냉전 이후의 평화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탈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평화증진 추세가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보다 장기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지난 15년간의 변화는 무력갈등과 평화에 관한 주요 이론 및 가설에서 제시되는 여러 요인의 효과와, 특히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Alder, Emmanuel and Michael Barnett. 1998.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gell, Norman. 1912. *The Great Illusion*. London: Heinemann.
- Axelord, Robert and Robert O. Keohane. 1986.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26-54.

Barbieri, Katherine. 1996. "Economic Interdependence: A Path to Peace or Source of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3(1): 29-49.

Blainey, Geoffrey. 1988. *The Causes of War*. New York: The Free Press.

Boulding, Kenneth E. 1978.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Buzan, Barry. 1984. "Economic Structure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Limits of the Liberal Ca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44): 597-624.

\_\_\_\_\_. 1983. *People, State and Fear*. London: Harvester.

Copeland, Dale C. 1996.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A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20(4):5-41.

Cox, Robert.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0(2): 126-55.

Doyle, Michael W. 1997.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W. W. Norton.

Gaddis, John Lewis. 1989.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91.

\_\_\_\_\_. 1964. "An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1 (1); 1-4.

Gartzke, Erik, Li, Quan and Charles Boehmar. 2001. "Investiga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5(2): 391-438.

George, Alexander. 2000. "Forward" in Arie M. Kacowicz. Yaacov

- Bar-Siman-Tov, Ole Elgstrom and Magnus Jerneck, eds., *Stable Peace among Nation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1-18.
- Glaser, Charles. 1997.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World Politics*, 50(1): 171-201.
- Gowa, Joanne. 1999. *Ballots and Bulle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eco, Joseph M. 1990. *Cooperation among Nations: Europe, America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IIK(Heidelberg Institute on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 2005. *Conflict Barometer 2005*. Heidelberg: IIK, University of Heidelberg.
- Human Security Centr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5. *Human Security Report 2005: War and Peac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Crisis Watch*, no. 21 (May).
- Jepperson, Ronald L.,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1996.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ies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33-78.
- Jervis, Robert. 2002. "Theories of War in an Era of Leading-Power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4.
- Karns, Margaret P. and Karen A. Mingst. 2004.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olitics and Processes of Global Governance*. Boulder: Lynne Rienner.
- Kant, Immanuel. [1795] 1970. "Perpetual Peace," in M. Forsyth, H.M.A. Keens-Soper, and P. Savigear, eds., *The Theory of*

- International Relations: Selected Texts from Gentili to Treitschke.*  
London: Allen and Unwin.
- Katzenstein, Peter. ed.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ies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rouse, Keith and Michael C. Williams. ed. 1997. *Critical Security Studies: Concepts and Cases.* London: UCL Press.
- Kugler, Jacek and Douglas Lemke, ed. 1996. *Parity and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ydd, Andrew and Duncan Snidal. 1993. "Progress in Game-Theoret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Regimes," in Volker Rittberger, ed.,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12-35.
- Lawson, Stephanie. ed. 1995. *The New Agenda for Global Security: Cooperating for Peace and Beyond.* St. Leonards: Allen and Unwin.
- Levy, Jack S. 1989. "The Causes of War: A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in Philip Tetlock, et. al., *Behavior, Society, and Nuclear War*, Vol.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9-333.
- Lipschutz, Ronnie D. 1995. *On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rshall, Monty M. and Ted Robert Gurr. 2005. *Peace and Conflict 2005.* College Park: CIDCM, University of Maryland.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_\_\_\_\_. 1994/5.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19(3): 5-49.
- \_\_\_\_\_.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After the Cold

-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1): 5-56.
- Morgan, Patrick M. 1977. *Deterrence: A Conceptual Analysis*. London: Sage.
- Mueller, John. 2004. *The Remnants of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üller, Harald, 2002. "Security Cooperation,"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ousand Oaks, CA: Sage. 369-91.
- Nye, Joshep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Organski, A.F.K. and Jace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acheck, Soloman W. 1980.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1): 55-78.
- Ray, James Lee. 1995.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nflict*.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Risse-Kappen, Thomas. 1995. "Democratic Peace: Warlike Democracies? A Social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of the Liberal Argumen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4): 491-517.
- Rogowski, Ronald. 1989. *Commerce and Coalitions: How Trade Affects Domestic Political Alignm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tt, Bruce M. and John R. Oneal. 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New York: W. W. Norton.
- Russett, Bruce and Harvey Starr. 2000. "From the Democratic Peace to Kantian Peace: Democracy and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 of War Studies I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93-128.
- Schelling, Thomas. 1967.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hultz, Kenneth A. 1998.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829-44.
- Schweller, Randall L. 1996. "Neorealism's Status-Quo Bias: What Security Dilemma?" *Security Studies*, 5(3): 90-121.
- Schweller, Randall L. and David Priess. 1997. "A Tale of Two Realisms: Expanding the Institutions Debate,"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1, Suppl. I: 1-32.
- Snidal, Duncan. 1991.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3): 387-402.
- Wagner, R. Harrison. 2000. "Bargaining and W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3): 469-84.
- Waever, Ole, Barry Buzan, Morten Kelstrub and Pierre Lemaitre. 1993. *Identity, Migration and the New Security Agenda in Europe*. London: Pinter.
-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391-425.
- Wilson, Charles. 1978. *Profit and Power: A Study of England and the Dutch Wars*. Hague: Martinus Nijhoff.
- Young, Oran R. 1991. "Political Readership and Regime 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3): 281-308.



<ABSTRACT>

## Current Trends in Global Armed Conflicts and Competing Theories on War and Peace

Dae-Won Koh

A cross-examination of existing data-sets shows that the number and magnitude of armed conflic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ignificantly declin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lthough various explanations from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are given on the factors of, and future prospect for such a trend, no single one is satisfactory enough. Rather the decline of armed conflicts seems to owe to a multitude of factors emphasized by the realist, liberalist and constructivist explanations. A lot more study is required to examine the interacting effects of those factors.

**Key Words** : Armed Conflicts, War, Liberal Peace, Peace Studies,  
Social Constructivism